

투데이칼럼

실록 속의 장녹수

장녹수는 조선시대 연산군의 후궁이다. 중종반정을 일으킨 신료들은 연산군의 광기를 부추긴 여인으로 장녹수를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록을 보면 장녹수가 저지른 죄상은 당대의 권세가들이 누렸던 것과 별로 차이가 없다. 임금의 총애를 받은 후궁을 폭정의 조연으로 내세우는 방식은 훗날 벌어진 인조반정에서도 광해군과 김계시의 관계로 재현된다. 장녹수(張綠水)는 1502년(연산군 8년) 실록에 처음 이름이 나온다.

아버지 장한필은 문과 출신이다. 1488년(성종 19년)에 종5품의 문의 현령으로 재임할 때 광기였던 어머니와 관계하여 장녹수를 낳았다. 이처럼 장녹수는 어엿한 양반의 핏줄을 이어받았지만 천민의 신분이었다. 조선시대에는 부모 중 한쪽이 천민이면 그 자식 역시 천민이 된다. 장녹수는 어머니의 신분을 이어받아 공노비가 되었다. 양반과 천첩 사이에서 태어난 여식을 열녀(孽女)라 한다. 황진이 그리고 월매의 딸 춘향 이도 열녀였다. 장녹수는 어머니의 운명을 이어받아 어릴 적부터 가정에 들어 관기가 되었다. 조선 시대에 관기는 수형이나 벼슬아치들의 공식적인 성노리개였다.



정복규
논설위원

그들은 동기 시절부터 가무음곡을 교육받아 각종 연회에 동원되었다. 관기는 서울 기생인 경기(京妓)와 지방 기생인 지방기(地方妓)로 구분된다. 지방기 중에서 미모와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경기로 뽑아 올렸다. 지방기는 관아에 예속된 세습 노예로서 50세가 되어야 은퇴할 수 있지만 대신 조카나 딸을 기적에 입적시켜야 했다. 경기는 궁중의 여악을 관장하는 장악원에 들어가 무용이나 춤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뒤 진찬, 진연 같은 궁중잔치에 동원되었다. 장녹수 역시 지방기로 활동하다가 경기로 선발되어 서울에 올라왔다. 지방기가 경기로 뽑히게 되면 인생 역전의 기회가 있다. 고관대작들의 소실이 되어 영화를 누릴 수 있고 크게는 임금의 눈에 들어 후궁이 되고 면천까지 될 수 있었다.

연산군이 장녹수를 만난 것은 즉위 8년째인 1502년(연산군 8년) 숙부인 제안대군의 저택이었다. 제안대군은 일찍이 아버지 성종에게 왕위를 빼앗겼던 예종의 둘째 아들이다. 연산군은 제안대군의 처지가 폐비 윤씨와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다고 느꼈던지 종종 함께 술잔을 기울였다. 그 과정에서 연산군은 빼어난 음률과 교태를 자랑하던 장녹수를 만났다. 당시 장녹수의 나이는 서른 살 남짓으로 아홉까지 하나 있었다. 그러나 외모가 방년 16세 처녀처럼 어려 보였고 목소리가 맑고 창아했다. 한눈에 반한 연산군은 즉시 그녀를 궁궐로 데려가 종3품 숙원(淑媛)에 봉했다. 비천한 노기에 불과했던 장녹수는 하루아침에 왕의 후궁으로 변신했다. 그때부터 장녹수는 마석이 뛰어내지는 않았지만 특유의

교태를 발휘하여 연산군을 감동시켰다. 어린 시절부터 모성에 굶주렸던 연산군에게 마음의 빈칸을 채워 주었다. 장녹수는 이듬해 종3품 숙용(淑容)으로 품계가 올랐고 언니 장복수와 아들도 면천됐다. 처제 덕분에 형부 김효손은 함경도 전향 별감이라는 벼슬을 거쳐 7품 무관직인 사정(司正)에 이른다. 이 무렵 '흥청망청'이란 말이 생겨났다. 당시 궁궐에 불러들인 기생을 흥청(興淸)이라 불렀다. 흥청은 태평성대를 기리기 위한 여성 가무악대였다. 그런데 후대에 흥청은 '분수를 잃고 종류에 빠져들었다'는 뜻의 '흥청망청'이란 말로 변질되었다. 장녹수는 고독했던 연산군의 의중을 헤아리고 깊이 이해해 줌으로써 마음의 파란처 역할을 했던 여인이 다. 드디어 중종반정이 일어났다. 반란의 핵심 세력은 어제까지 충성을 다졌하던 조정 신료들이었다. 연산군은 저항을 포기했다. 반군들은 연산군을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 보내고 장녹수는 참형에 처했다. 백성들은 그녀의 시체에 돌맹이를 던졌다. 비천한 기생에서 정3품 소용(昭容)의 지위에까지 올랐던 장녹수의 성공신화는 비극적인 최후로 끝났다.

사설

전북 도내 폐업 속출

얼어붙은 민생 경제가 이어지고 있다. 탈출구도 없다. 코로나 때부터 이어져왔던 경기 불황이 누적된 데다 탄핵 정국으로 소비심리까지 잔뜩 위축되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힘들게 버텼었지만 탈출구를 찾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각종 점포가 몰려 있는 전북도청 부근은 목이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건물마다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폐업을 결정한 자영업자는 코로나 시기보다도 힘들다고 말한다. 가게를 내놓은 지 6개월이 넘도록 전화 한통 오지 않을 정도로 경기가 가라앉았다. 보러 오는 사람이 아예 없다. 실제 영업을 하겠다고,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예 없다. 1년 넘게 하나도 없다. 2022년 전북의 폐업자 수는 2만 7천여 명이다. 엔데믹이 선언됐지만 2023년에 폐업자는 오히려 3만 1천여 명으로 늘었다. 이제나 저제나 경기 회복

을 기대했지만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이다. 투자했던 비용의 일부라도 회수해서 나가겠다는 기대 심리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 가지 시국도 그렇고 그런 기대 심리가 완전히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북의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 금액은 42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0억 원이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영업해온 상인들까지 문을 닫을 정도로 파국화하는 것이다. 자금을 긴급 지원하고 있으며, 폐업 시에는 노란우산 공제금이나 폐업 사업장을 정리하는 사업들을 추가로 지원할 뿐이다. 올해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도 기준치 100을 한참 밑도는 77로 나타났다. 위축된 소비 심리가 살아날 가능성은 높지 않아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머그샷 공개

머그샷(Mug shot)이란 '체포된 범인을 촬영한 사진'을 의미하는 은어다. 정식 명칭은 'Police Photograph'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 전 과거 자신의 '머그샷(수용자 기록부 사진)'을 연상케 하는 대통령 공식 사진을 공개했다. 대통령 공식 사진도 배포했다. 트럼프 인수는 "나를 뒤도널드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며 공식 사진을 배포했다. 사진 속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23년 대선 결과(2020년) 뒤집기 혐의로 조지아주에서 기소됐을 당시 찍었던 머그샷과 비슷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고개를 살짝 숙이고 눈을 치켜뜨면서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이 었다. 트럼프는 2023년 당시 촬영했던 머그샷을 '저항의 상징'으로 표현해 이를 이용한 기념품을 제작하고 선거자금 모

금에 활용한 바 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초청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사한정 부주석이 취임식에 참석했다. 중국은 "새로운 미국 정부와 협력해 두 나라가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찾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는 미국의 제 45·47대 대통령이다. 미국 역사상 최고령 취임 대통령이자 가장 재산을 많이 보유한 대통령이다. 1946년 뉴욕에서 부동산 재벌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스코틀랜드에서 온 이민자였고, 그의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는 독일 팔츠 지방의 칼슈타트(Kallstadt)에서 이민 온 독일계 이민자였다. 도널드 트럼프는 뉴욕 군사학교를 졸업한 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 트럼프 기업을 성장시켰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강제 추방’ 반대 외치는 미 고교생들



지난 8일(현지 시간) 미 텍사스주 휴스턴의 샘 휴스턴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 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과 대규모 강제 추방에 반대하며 시위하고 있다.

희생자 추모 촛불 밝히는 스웨덴 사람들



지난 8일(현지 시간) 스웨덴 외레브로 외곽 성인 교육 센터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현장 인근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촛불 집회가 열려 한 남성이 초를 점화하고 있다. 지난 4일 발생한 총격으로 11명이 숨지고 최소 5명이 부상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